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윤리적 민감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주연*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Call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thical Sensitivity

Joo-Yeon Lee*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r=.43, p<.001$), 윤리적 민감성($r=.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윤리적 민감성은 간호전문직관($r=.5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은 완전 매개변수임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36%였다. 따라서 윤리적 민감성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aimed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nse of calli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sensitivity.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September 1, 2022, to October 31, 2022,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IBM SPSS/WIN 26.0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sense of calling and professional commitment ($r=.43, p<.001$), as well 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sense of calling and ethical sensitivity ($r=.38, p<.001$). Furthermore, ethical sensitiv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fessional commitment ($r=.59, p<.001$).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nse of calling and professional commitment, ethical sensitivity acted as a complete mediator, explaining 36% of the variance. Therefore, ethical sensitivity emerges as a crucial variable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commitment,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specific strategies to enhance it.

Key Words : Nursing student, Calling,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sensitivity,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wndus@chsu.ac.kr)

Received September 12,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Revised October 11, 2023

Published November 28, 2023

1.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과학의 발전과 4차 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대상자의 건강요구도 다양화되어 간호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1]. 높은 수준의 의료 발전과 함께 간호사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역할뿐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따른 간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2]. 간호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윤리적 신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3], 간호대학생이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과 술기뿐 아니라 간호윤리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적 민감성은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1]. 윤리적 민감성은 어떤 상황속에서 존재하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윤리적 간호행위의 시작점이 된다[4]. 윤리적 민감성은 개인적 요인이며,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았으며[5], 간호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과 교육횟수는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쳤다[2]. 그러므로 예비 전문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해 간호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윤리적 민감성 확립은 중요하다[1].

간호업무는 복잡하고 바쁜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므로 물질적 수입이나 승진 등의 보상을 넘어선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의식을 가져야 임상에 오래 재직하면서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6]. 소명의식은 직무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이다[7]. 즉, 소명의식은 본인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여,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8].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명의식은 사회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직업에 관련한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7]. 소명의식은 직무만족을 높이고 어려운 간호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며[9],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업

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며, 삶에 대한 높은 안녕감을 느낀다[10]. 따라서 긍정적인 직업의식을 갖추기 위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간호학대생의 소명의식을 높이는 것은 일에 대한 그 의미를 찾고 이직률은 높은 간호현장에서 인력관리에도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간호직업관으로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태도와 지식 등을 의미한다[1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이며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12].

간호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은 임상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으로 연결되며[13], 간호사가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가질수록 돌봄 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어 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4]. 또한 전문직관은 윤리적 갈등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며[2],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습득되며 향상될 수 있다[1].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간호전문직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간호대학생에게 어려운 간호환경에서 윤리적 간호행위와 직업에 대한 만족감 가지고 간호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15], 생명윤리의식,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12], 소명의식과 생명의료윤리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16]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의 핵심 가치이자 중요 자질인 소명의식과 윤리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과의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 민감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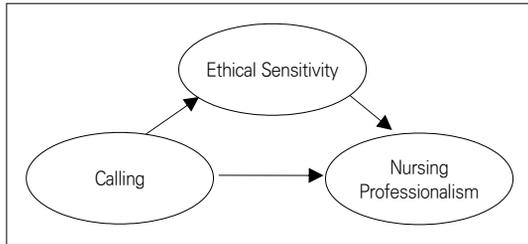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충북지역 C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G*power 3.1.9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와 검정력 0.95 기준으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7명으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3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13부를 제외한 122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Dik 등[7]이 개발하고 Sim과 Yoo [10]가 수정·보완한 총 12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목적/의미' 4문항, '초월적 부름' 4문항, '친사회적 지향' 4문항으로 총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해당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Dik 등[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11]이 개발한 도구를 Han, Kim과 Yun [17]이 타당도 검증하여 수정·보완한 18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회적 인식' 5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의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Han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7이었다.

2.3.3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민감성은 Joung과 Seo [18]가 개발한 도구로, 총 34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업무 책임' 6문항, '전문직 윤리' 6문항, '환자존중' 5문항, '선행의지' 5문항, '윤리적 상황인식' 3문항, '윤리적 부담감' 3문항, '공감' 3문항, '윤리적 숙고' 3문항으로 총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Joung 등[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6이었다.

2.3.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사항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이다. 연령은 기입형이며, 성별, 학년, 종교, 입학동기는 선택형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전공만족도는 불만족에서 만족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으며, 해당 학과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모집공고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과 자료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문을 공지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대상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개별봉투를 모두 제공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는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는 independen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 민감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으며,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

Table 1. Differences in the calling, ethical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alling		Ethic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31(25.4)	2.60±.73	.10	4.32±.52	-1.40	3.80±.61	-.70
	Female	91(74.6)	2.47±.60	(.320)	4.47±.52	(.164)	3.90±.63	(.484)
Age(yr)	20≤	32(26.2)	2.43±.53	.63	4.49±.41	.31	3.78±.49	1.56
	21~25	58(47.6)	2.57±.66	(.535)	4.43±.54	(.736)	3.97±.64	(.216)
	≥26	32(26.2)	2.46±.70		4.39±.64		3.75±.68	
Grade	Freshman	18(14.8)	2.47±.62	.26	4.17±.75	2.07	3.61±.68	1.79
	Sophomore	44(36.1)	2.47±.67	(.843)	4.49±.46	(.109)	4.00±.60	(.152)
	Junior	36(29.5)	2.59±.59		4.50±.46		3.85±.46	
	Senior	24(19.6)	2.47±.69		4.43±.47		3.83±.77	
Religion	Christianity	17(13.9)	2.38±.67	1.60	4.29±.54	.10	3.72±.77	1.83
	Catholicism	7(5.7)	2.85±.63	(.180)	4.64±.42	(.417)	4.14±.39	(.128)
	Buddhism	10(8.2)	2.31±.55		4.27±.4.1		3.50±.42	
	No Religion	82(67.3)	2.50±.62		4.46±.53		3.90±.61	
	Other	6(4.9)	2.93±.74		4.51±.52		4.14±.65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Employment rate ^a	40(32.8)	2.38±.54	1.01	4.30±.47	4.59	3.77±.59	2.52
	Aptitude & Interest ^b	56(45.9)	2.63±.65	(.403)	4.63±.35	(.022)	4.04±.56	(.045)
	Recommended from others ^c	14(11.5)	2.43±.65		4.31±.53	b)a	3.76±.51	
	According to grades ^d	2(1.6)	2.46±.77		4.28±.40		3.78±.31	
	Others ^e	10(8.2)	2.45±.87		4.07±1.00		3.47±.95	
Satisfaction of major	Unsatisfied ^a	4(3.2)	1.69±.36	8.92	3.63±1.56	12.29	2.88±1.18	13.41
	Moderate ^b	54(44.3)	2.31±.55	(<.001)	4.29±.44	(<.001)	3.69±.54	(<.001)
	Satisfied ^c	64(52.5)	2.70±.64	c)a,b	4.61±.39	c)b)a	4.08±.59	c)b)a

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윤리적 민감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이 91명(74.6%)이었으며, 연령은 21~25세가 58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2학년이 44명(36.1%), 3학년이 36명(29.5%)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82명(67.3%)으로 가장 많았다. 입학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있는 경우 56명(45.9%), 취업률이 40명(32.8%)으로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64명(52.5%), 보통인 경우가 54명(44.3%)으로 많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명의식은 전공만족도(F=8.9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았다. 윤리적 민감성은 입학동기(F=4.59, p=.022), 전공만족도(F= 12.2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윤리적 민감성은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취업보장으로 입학한 경우가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입학동기(F=2.52, p<.045), 전공만족도(F=13.4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정도

대상자의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 민감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소명의식은 4점 만점에 2.51±.64 점, 윤리적 민감성은 5점 만점에 4.44±.52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7±.7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alling, ethical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2)

Variables	M±SD	Min/Max	Range
Calling	2.51±.64	1.00/4.00	1-4
Ethical Sensitivity	4.44±.52	1.68/5.00	1-5
Nursing Professionalism	3.87±.71	1.28/4.94	1-5

3.3 대상자의 소명의식, 윤리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소명의식, 윤리적 민감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명의식은 윤리적 민감성($r=.43, p<.001$), 간호전문직관($r=.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윤리적 민감성은 간호전문직관($r=.5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calling, ethical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2)

Variables	Calling	Ethic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r(ρ)		
Calling	1		
Ethical Sensitivity	.43 ($\langle.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38 ($\langle.001$)	.59 ($\langle.001$)	1

3.4 대상자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정성,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 0.815로 0.1이상 이었고, 독립변수 간의 분산팽창요인(VIF)은 1.00-1.227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 통계량은 1.937로 잔차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오차의 등분산성, 모형의 선형성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회귀방정식 3단계를 이용하였다.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소명의식이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beta=.43, p<.001$), 소명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4%이었다. 2단계에서 소명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beta=.38, p<.001$),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8%이었다. 1단계와 2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소명의식이 종속변수인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16, p=.54$), 매개변수인 윤리적 민감성이 종속변수인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eta=.52, p<.001$)으로 낮다. 검증 결과 윤리적 민감성이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이었다.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 단계로 윤리적 민감성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소명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Z=4.08, p<.001$)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전문직과 및 윤리적 민감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명의식은 4점 만점에 2.51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Ryu [19]의 연구결과 2.38점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는 인간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며, 건강 회복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타전공 대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명의식은 봉사정신과 이타정신을 바탕으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적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6].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은 5점 만점에 4.44점으로 같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ethical sensitivity between call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2)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 R ²	F	p
Calling→ Ethical Sensitivity	.35	.07	.43	5.22	$\langle.001$.19	.18	27.25	$\langle.001$
Calling→ Nursing Professionalism	.37	.08	.38	4.53	$\langle.001$.389	.14	20.52	$\langle.001$
3. Calling, Ethical Sensitivity → Nursing Professionalism						.379	.36	34.91	$\langle.001$
1) Calling → Nursing Professionalism	.15	.08	.16	1.94	.054				
2) Ethic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63	.10	.52	6.50	$\langle.001$				

Sobel test: $Z=4.08, p<.001$

은 도구를 사용한 Jin & Kim [20] 연구결과 4.40점으로 유사하였다.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높은 이유는 간호는 이타적이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 다른 직종보다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의료분야에서는 엄격한 윤리적 규범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와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7점으로 Kim과 Joung [21]의 연구결과 3.82점과 유사하였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McCloskey 와 McCain [22]의 연구에서 취업 후 1년 동안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Ha [23]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3.77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임상경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24], 신규간호사는 낮은 환경 속에서 지시받은 간호 활동만을 수행하며 간호업무를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여 직무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전문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5]. 간호전문직관은 환자의 안전 간호 및 간호의 질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14, 26], 간호대학생 시절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간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소명의식은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보통과 불만족보다 높았다. Lee와 Je [2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 소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간호사는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안전과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런 역할에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소명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환자 돌봄에 대한 소명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은 입학동기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윤리적 민감성은 입학동기가 흥미와 적성에 따른 경우가 취업률

이나 기타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았다. 이는 Kim 등[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예비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측면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전공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올바른 윤리적 행동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입학동기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나 Jeoung [16]과 Lee 등[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적성,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영향 요인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28].

대상자의 소명의식, 윤리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Jeoung [16]의 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1]의 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며, 환자 중심의 간호교육을 받음으로써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자신에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어 간호전문직관이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환자 안전과 복지를 위해 간호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윤리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 나타나 결과라고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교육이 간호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Kim과 Han [29]의 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한 Jeong [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고려할 때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진다. 윤리적 민감성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윤리적으로 민감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중요시 할 때 간호전문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녕을 위해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윤리적인 민감성을 가진 간호사들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가치, 지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12],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학과에서는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모의할 수 있는 윤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체계의 확립과 간호에 대한 윤리 기준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윤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윤리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윤리적 민감성이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완전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민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것은 무리가 있으며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올바른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K, Kim & M. Y, Joung (2019).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115-124. DOI : 10.5977/jkasne.2019.25.1.115
- [2] H. R, Kim & S. H, Ahn (2010).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Medical Ethics*, 13(4), 321-336.
- [3] K. M, Hwang (2023). A Study on Ethical Leadership, Ethical Sensitivity, Ethical Climate, and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6), 753-770. DOI : 10.22251/jlcci.2023.23.6.753
- [4] A. Milliken (2018). Nurse ethic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thics*, 25(3), 278-303. DOI : 10.1177/0969733016646155
- [5] S. H, Eom & S. S, Kim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Moral Sensitiv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27(3), 199-207. DOI : 10.12934/jkpmhn.2018.27.3.199
- [6] J. Y, Lee & M. H, Lee (2020). A Study on Calling, Resilience, Leader-Member Exchange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2), 313-321. DOI : 10.14400/JDC.2020.18.2.313
- [7] B. J, Dik & R. D, Duffy (2007).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DOI : 10.1177/0011000008316430
- [8] J. O, Park & K. I, Jung (2016). Effects of Advanced Beginner-Stage Nurses' Sense of Call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Retention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2), 137-147. DOI : 10.11111/jkana.2016.22.2.137

- [9] A. Ziedelis (2019). Perceived calling and work engagement among nurse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1(6), 816-833. DOI : 10.1177/0193945918767631
- [10] Y. L. Sim & S. K. Yoo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K).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4), 847-872.
- [11] E. J. Yoo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2] G. S. Jeong & Y. S. Choi (2022). The Influencing Factor to View on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nd Ability of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0), 220-227. DOI : 10.5762/KAIS.2022.23.10.220
- [13] Y. M. Kwon & E. J. Yeu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14] E. J. Cho & K. S. Bang (2013).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2), 94-101.
- [15] K. E. Lee & I. S. Seo (2022).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al of Nursing Education*, 28(1), 37-47. DOI : 10.5977/jkasne.2022.28.1.37
- [16] K. S. Jeong (2021). Effects of Self-Esteem, Sense of Calling and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14, 1-9.
- [17]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8] M. Y. Joug & J. M. Seo (2020). Development of an Ethical Sensitivity Scale for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4), 375-386. DOI : 10.7739/jkafn.2020.27.4.375
- [19] K. M. Kim & S. A. Ryu (2019). Positive emoti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the mediation of calling.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5(3), 231-248. DOI : 10.20406/kjcs.2019.8.25.3.23
- [20] S. H. Jin & E. H. Kim (2020).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and Ethical Sensitivity on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4), 394-401. DOI : 10.21032/jhis.2020.45.4.394
- [21] Y. K. Kim & M. Y. Joug (2019).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115-124. DOI : 10.5977/jkasne.2019.25.1.115
- [22] J. C. McCloskey & B. E. McCain (1987). Satisfaction, commitment and professionalism of newly employed nur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1), 20-24. DOI : 10.1111/j.1547-5069.1987.tb00581.x
- [23] M. N. Ha (2014). The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24] S. H. Ko & B. Y. Chung (2004).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0(3), 335-344.
- [25] H. A. Kang, K. J. Cho, O. J. Ky, N.H. Choe & W.O. Choe (2002). Re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Clinica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470-481.
- [26] M. A. Lee, S. J. Kang & H.S. Hyun (2019).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5(4), 317-328. DOI : 10.11111/jkana.2019.25.4.317
- [27] S.Y. Lee & S. B. Je (2020). The Effect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231-246.
DOI : 10.22143/HSS21.11.5.17

- [28] S.H, Kim & H.O, Park (2020). Effects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2), 101-110. DOI : 10.5977/jkasne.2020.26. 2.101

- [29] H.W, Kim & S.J, Han (2019).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ll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5(3), 220-228.
DOI : 10.11111/jkana.2019.25.3.220

이 주 연(Joo-Yeo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6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관심분야 : 기본간호, 노인간호
- E-Mail : wndus@chsu.ac.kr